

현대중공업(주), 극초고압(800kV급) 가스절연개폐설비개발

현대중공업(대표 : 최길선)은 극초고압(800kV급) 가스절연 개폐설비(GI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러시아 NIIVA사와 3년여의 공동연구 끝에 개발해 전문시험기관의 까다로운 개발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설명했다.

800kV급 GIS는 대전력을 저손실, 초고속으로 수요처까지 송전시키기 위한 극초고압 전력 개폐 및 차단설비로 현재 세계 유수의 중전기기 업체 등에서도

극소수만이 그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대중공업은 800kV GIS개발성공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설비의 국산화와 한전의 765kV 전압격상 추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800kV급 기술을 활용한 420kV, 500kV 등 GIS의 해외수출시장 확대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산전(주), 중용량 인버터 2개 모델 고마크 획득

LG산전(대표 김정만)은 최근 국내 최초로 한전으로부터 중용량 인버터 2개모델(스타버트is5, 스타버트iH)에 대해 고마크 인증을 획득, 본격적인 보급에 들어갔다.

기업에서 이 제품을 설치할 경우 수요자는 평균 30~40%까지 인버터 구입비를 지원받게 되며 절감되는 전력 1kW당 19만 8,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LG산전은 지난달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인버터 실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팅에 나서며 보급확대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소 성능검증 시험을 통과, 인증을 획득한 이 제품은 자체기술로 개발된 주력제품으로 팬, 펌프 등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하에서부터 고기능, 고성능을 요하는 FA반송기기, 주차설비, 단위기계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과 옵션장치가 돼 있다.

LG산전은 이번 제품의 고마크 인증으로 국내 1,000억원의 시장규모에서 약 400억원의 매출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LG전선(주), 전선류 인터넷 경매

LG전선(주)(대표 : 권문구)은 온라인 판매 100억을 기념해 자사 홈페이지 내에 '이벤트 경매', '포장자재 회수 서비스'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LG전선은 업계최초로 지난 달 말 '이벤트 경매' 코너를 홈페이지에 추가하고 8월 13일부터 경매를 실시하였다.

첫 경매는 피복선(일반전선)3개 품목등 총 30개 상품을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 온라인 상으로 실시되며, 경매품목은 이번 피복선을 시작으로 추후 권선, 기기선 등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전선 경매는 LG전선이 경매물의하한가를 결정한 후 시작돼 경매 마감시간까지 제시된 최고가격이 낙찰되는 방식이며, 낙찰된 경매물품에 대한 인도계약은 고객의 신용상태 파악 후 별도로 체결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전선의 한 관계자는 "이벤트 경매는 양질의 재고 제품을 시중가 보다 최고 5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 고객 서비스 차원"이라며 "시

중 판매품과 비교해 상품가치의 차이가 없는 제품을 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공급하기 때문에 고객은 구매가격과 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LG전선 홈페이지(www.lgcable.c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이벤트 경매'란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LG전선은 또 홈페이지를 통한 포장자재(드럼, 보빈 등)회수 서비스도 이 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관계자는 "목드럼, 보빈 등 처치곤란한 포장자재의 회수요청이 최근 월별 10건 이상으로 증가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LG뿐 아니라 타 전선회사의 모든 포장자재 회수까지 온라인 상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LG전선 홈페이지는 주문관련 정보(배송/채권/재고 등)의 리얼-타임 조회서비스와 회원 개인별 일정관리 등의 서비스를 추가했다.

(주)케이디파워, i 디지털 기기 개발

전력벤처기업인 케이디파워(대표:박기주)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에너지 절감과 전기안전사고 사전 예방등을 실시간으로 운전·제어할 수 있는 i 디지털

기기를 개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i 디지털기기는 기존의 광각형 아날로그 계기의 전력량계, 주파수계, 역률계, 전력계, 전압계, 전류계



등을 100% 디지털화했다.

특히 이 제품은 휴대폰 모바일 전기안전서비스와 DB축적 최적의 운전서비스, 전기요금 20%절감, 원격종합점검 서비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첨단 전력 감시제어 시스템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한 전압과 전류의 입력만으로 3ℓ력량, 지정시간 전력량, 최대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불평형률 등 43가지 요소를 계측할 수 있으며 입력전압 단상, 3상 Y, △구분없이 최고 550V까지 입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2차 전압, 전류 자동판단, 정전자료 보존, CT, PT 광역조정, 사고원인 표시등이 실시간

으로 파악할 수 있고 변환기(T.D)가 불필요해 전기 안전관리자가 손쉽게 운전·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제품은 기존 광각형 아날로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설치시간이 빠르고 정밀도 ($\pm 0.5\%$), 데이터 보존기간(20년) 측면에서 성능이 우수하다”며 “특히 전기요금을 최대 20%까지 절약하는 에너지 절감시스템과 전기누전 등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계양전기(주), 가정용드릴 홍보

계양전기(주)(대표:이상익)가 최근 가정용 충전드릴(제품명 DDH 128K)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사용자들의 편리성에 초점을 맞춰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일반 드라이버 기능과 험머 기능을 겸비해 콘크리트 작업이 가능하며, 사용전압이 높아 3시간 급속충전으로 1시간 동안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

또 정회전 역회전 기능과 저속·고속 속도조절 장치가 내장돼 있어 누구나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

계양전기 관계자는 “창사 이래로 대기업체 선물용으로 충전용 공구가 공급되기는 처음이며 이번 기회로 계양에 대한 기업홍보 및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했다.

LG전선(주), 안전진단 온라인 서비스

LG전선(주)(대표:권문구)이 업계최초로 온라인으로 전기안전컨설팅을 서비스하는 ‘e-Safety LG’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감전 등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산업생산성 증대를 모토로 한 이 사이트는 ▲범용케이블 Q&A ▲신규

케이블 선정 및 시공-준공 기술지원 ▲케이블 및 주변기기 노후화 진단·분석 ▲수배전 설비 요소 기술지원 ▲케이블 사고현장 복구 지원 등 5개 분야에 걸친 고객들의 요구를 온라인상으로 접수해 구체적인 답변과 실행방안을 제안하고, 필요시 현장조사와 실

행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오프라인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이트 개설을 총괄한 정은택 전선사업부 상무는 “포항제철, 호남석유화학, 여천 LNG 생산기지 등의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10여년간 900여 업체를 통해 쌓아온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더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각분야 전문 컨설턴트들의 경험과 앞서가는 진단 장비로 전기안전에 관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의 전기안전 진단을 원하는 고객은 LG전선 홈페이지(www.lgcable.co.kr)에서 ‘LG전기안전 컨설팅’ 배너를 클릭하거나, ‘e-Safety LG’ 사이트(www.esafetylg.com, www.esafetylg.co.kr)에서

직접 접속후, 회원가입을 통해 ‘컨설팅신청’란에서 신청하면된다.

고객들은 또한 ‘자가진단’ 코너에서 설문 응답을 통해 사업장의 전기안전 상태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음성화상시스템을 통해 ‘화상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사이트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관련법규와 자격증 취득 관련자료 등 전력기술인들의 공통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전기인모임/열린광장)와 회원개개인의 전용공간인 ‘마이존 서비스’ 등을 갖추고 있어 서비스 제공차원을 넘어 업계지식의 축적 및 관리에 일조하는 정보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케이디파워, 동아전기공업과 전략적 업무제휴 체결

전력벤처기업인 케이디파워(대표:박기주)와 차단기 및 계전기 전문생산업체인 동아전기공업(대표 서병우)이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양사는 케이디파워 서울 포이동 사무소에서 박기주 케이디파워 사장과 서병우 동아전기공업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제품 개발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공동 협력기로 합의하고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번 업무제휴협약으로 동아전기공업은 차단기류, MCCB, 계전기류, 개폐기류 등을 케이디파워에 공급·판매하는 동시에, 케이디파워는 안정적인 부

품공급선을 확보하여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양사는 영업부문에서도 윈-윈 전략을 통해 시장점유율과 시장확대에 상호 협력기로 합의했다.

케이디파워 한 관계자는 “자사의 지능형 변전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출시 후 3년만에 안정적인 시장형성과 중전기 표준제품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 동아전기공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올 하반기 부터 출시되는 지능형 i 중전기기의 시장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광명전기, ‘디멘드감시제어시스템’ 개발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정밀 전력 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제품이 출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주)광명전기(대표:문길구, www.kmec.co.kr)는 최근 최대수요전력 및 역율감시 제어기능 등을 내재한 고정밀 전력감시제어시스템인 ‘디멘드감시제어시스템’을 개발 출시했다.

이 시스템은 R,S,T 상별 전기량 및 고조파(31차까지 가능)감시, 자동 수변전일지 작성, 통신 및 각종 파라메타의 자체 진단, 최대수요전력 및 역율감시제

어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최근 IT기기 급증으로 고품질의 전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디멘드 시스템은 전력품질 감시 및 고가의 전력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등 기능이 다양하여 앞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CT 및 PT는 배울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의 설정이 가능하고 직접 연결시 전압 600V, 전류 10A까지 허용하고 있어 설치가 용이하고 모든 신호를 디지털로 처리, 전압과 전류는 0.15%의 고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유성계전, 디지털 계전기 개발

계전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주)유성계전(대표 이진락)이 최근 기존 과전류 계전기의 기능을 통합한 디지털 과전류 계전기(DPRS)를 개발,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인 디지털 과전류 계전기는 기존의 단락·지락 과전류 계전기와 재폐로 계전기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것이며 변전소의 과전류를 방지하는 종합보호시스템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 제품은 고장기록 장치를 내장해 사고원인 분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장률

감소 및 유사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 고장기록 장치에는 순시치 파형을 재현함으로써 파형에 포함된 고조파의 분석, 고장시간, 고장내 용등을 알 수 있으며, 계전기의 동작 상태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고조파의 영향 등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유성계전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통합형 과전류 계전기로 그 동안 수입에 의존했으나, 앞으로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해외시장도 공략할 수 있는 첨단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전기(주), 안전기기전 우수상 수상

남북전기(주)(대표 강영식)가 개발한 ‘방폭형엔지니어링 플라스틱등기구(ENV시리즈)’가 안전성면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최근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개최한 ‘국제안전기기전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았다.

방폭형엔지니어링 플라스틱등기구는 가스폭발 위험이 있거나 분진이 많은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다.

때문에 주로 해안가에 위치한 정유·석유화학공장이나 가스저장고등에서 사용이 적합하며 염해로 인한 부식에도 매우 강한 특성이 있다.

다른 제품이 주물로 만들어지는데 반해 이 제품은 자

체 개발한 특수 플라스틱소재를 사용, 무게를 50% 이상 줄였으며 이로 인해 취급이 용이해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다.

또 기계적 강도도 우수하며 내구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광원은 나트륨, 메탈, 수은 등으로 다양하다.

남북전기 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 제품은 가스폭발 뿐만 아니라 분진에 의한 폭발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안전성이 뛰어나다”며 때문에 정유·화학공장등에 사용할 경우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고 수명을 크게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넥상스코리아(주), 미켈유전에 전선공급

세계적인 전선생산업체인 넥상스는 최근 노르웨이 스테토일사의 미켈 유전에 총 1천 750만 유로 규모의 엠프리칼 케이블을 내년 6월 까지 공급기로 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넥상스는 유체와 전기 및 통신 신호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엠프리칼 케이블 75km를 미켈유전에 공급하게 된다.

업체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미 넥상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엠프리칼 케이블 전력선을 생산·설

치한 바 있다”며 이번 계약은 넥상스가 엠프리칼 케이블 업계 선두 주자임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넥상스는 오는 10월부터 노르웨이 오슬로 할덴공장에서 미켈 유전에 공급할 엠프리칼 케이블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미켈유전은 오는 2003년부터 본격적인 유전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기연구원, 인도네시아 전력청 관계자 초청교육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시험 연구소(소장 김요희)는 최근 인도네시아 전력청 관계자 10명을 초청, '고전압, 대전력 시험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자원부의 기술기반 조성사업 중 하나인 '핵심전기기술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시험 연구소가 지난 98년부터 실시해 왔다.

올들어 지난 5월과 6월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전력청 연수생들이 각각 교육을 이수했다.

이번 교육에서 인도네시아 연수생들은 한국전력공사와 평일산업, 동미전기, 신성산전, 대한전선, LG전선, 고려애자공업, 일전전기 등 국내중전기 제조업

체를 탐방해 한국의 선진전기기술을 견학하고 각종 실험 인증과 기초이론, 고전압 시험, 대전력 시험등을 습득했다.

전기시험연구소는 연수생들의 숙박비와 체재비 일체를 부담하는 한편 연수생 전원에게 교육수료증을 수여했다.

전기시험연구소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핵심전기기술 인력양성사업은 그동안 국내 제조업체들과 해외업체들을 연계해주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관련 사업 마지막 해를 맞아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